

장성 입암산 '온대·습지식물의 보고'

전남산림연구소·전남대 조사팀, 100년생 헛개나무 확인

정상 부근 산지 습지에 산악약 등 다양한 식생 관찰

정상의 바위가 갖을 쓰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장성 입암산(立巖山)이 온대와 습지식물의 보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와 전남대학교 식생조사팀은 21일 장성 전남대 수련원 내 입암산 지역에 대한 식생 조사와 식물탐사를 한 결과 헛개나

무, 소태나무, 산악약 등 온대와 습지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했다고 밝혔다.

장성 입암산지역은 온대 남부식물과 온대 중부식물이 중첩된 지역이다. 낙엽활엽수인 참나무류가 주요 수종을 이루고 기후 변화에 따라 온대 남부 식생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표고 370~420m인 산 정상부 중간에서 산지 습지가 발견됐다. 습지 주변에는 산악약 등이 자라고 있는 등 다양한 식생이 관찰됐다.

높이 20m에 지름 80cm의 수령 100여년으로 추정되는 헛개나무 생육도 확인됐다.

중부지방에서 자생하는 50~60년생 소태나무(높이 18m, 지름 40cm)도 발견됐다.

헛개와 소태나무는 민간의료분야에서 약리성분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약재다. 그동안 많은 벌채가 이뤄

졌지만 일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대는 산림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헛개나무 등의 자생지를 보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멸종위기식물 평가규정에 맞춰 정리하고 법적보호종 등에 대한 목록 표준화 작업도 할 계획이다.

또 멸종위기종의 경우 국가 식물관련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윤병선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식물조사와 산림식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건전한 전남지방 산림생태계 보존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입암산(해발 654m)은 장성군 북하면과 정읍시 입암면에 걸쳐 있으며 산 정상 주변에 설치된 입암산성은 몽골 침입을 수차례 막아낸 호남의 중요한 군사요충지였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친정 부모와 애뜻한 만남

영암군, 다문화 가정 여성 초청 간담회

영암군은 지난 20일 다문화 가정 여성 친정 부모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시집온 딸과 친정부모 등 30여명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애뜻한 만남의 장이 됐다.

또한 그동안 멀리 타국에 시집 보낸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기 힘들었던 친정가족과 지낸 즐거웠던 순간들을 동영상으로 묶어 함께 시청하고, 환영의 선물 전달과 초청가족이 직접 쓴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고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온 손파 씨(26)는 "스무 살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돌보거나 낳아 기르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정부모님을 뵈고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영암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적셨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400여 다문화가정 세대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보성차밭 빛 축제
다음달 13일 개막
새해 카드달기 체험 등



다음달 13일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보성차밭 일원에서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대형트리카 불을 밝힌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보성차밭 빛 축제는 다음달 13일 저녁 점등식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2일까지 52일간의 겨울밤을 화려한 빛의 향연으로 수놓을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말의 해'를 맞아 말이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형상화 한 차밭 대형트리카와 테마거리, 은하수터널, 붓재~다향각 경관 조망, 빛의 거리, 포토 존, 다짐의 계단, 소망카드 달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마련된다.

2000년 밀레니엄 트리로 기념식물에 등록된 차밭 대형트리카는 높이 120m, 폭 130m로 차와 소리의 고장을 알리고, 형형색색 은하수 전구와 LED 조명을 이용해 눈꽃이 내리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소달구지 타고 동네 한바퀴... 담양군 창평면 삼지내마을의 소달구지 체험. 삼지내마을을 포함해 담양 대덕면의 무월마을, 영광 군남면의 용암마을이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체험휴양마을을 심사에서 4개 전 부문 1등급을 받았다. <전남도 제공>

이순신대교 과적차량 '스톱'...짐 내려놔야 '통과'

최첨단 계측장비 설치 완료...25일부터 본격 단속

세계 최고 주탑을 자랑하는 이순신대교를 앞으로는 과적차량이 건너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1일 여수국가산업단지과 포스코 광양제철 등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에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전자용 중차량중량정보관리시스템(WIM)을 최근 설치·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4일까지는 준법운행 계

부과된다.

과적차량은 현장에서 적정 중량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을 내려놓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

이순신 대교 하루 교통량 1만4000여대로 이 가운데 화물차와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이 8000여대로 전체 교통량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집중 단속에 앞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안내 플

"여수 1000만 관광객 시대"

김충석 시장, 민선 5기 성과와 내년 시정운영 방침

김충석 여수시장이 21일 열린 제1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민선 5기 성과와 함께 내년도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 시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계기로 여수가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 문화 수도'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복 전남도 건설발전재정장은 "적발시 적지 않은 과태료 등 개인적 불이익과 함께 사회적 손실도 크다는 점을 인식, 준법운행에 동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순신 대교는 세계 최고의 주탑(높이 270m)과 2260m에 이르는 국내 최장 현수교로 이 대교에서 내려다보이는 다도해의 경관이 장관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밝혔다.

지역민의 염원인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해서는 매각보다 장기 임대 방식으로 선 투자금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해양박람회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김 시장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침에 대해 무엇보다 시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뒀으며,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살기좋은 남해안권 허브도시 도약과 지역경제 활력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뽕뽕)의 이호영 대표

CHAN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채널A www.ichannel.a.com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